

신안군, 故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열어

고인의 고향인 하의면서 서거 이후 매년 개최 박우량 군수·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등 참석 행동하는 양심 정신 계승 위해 노력·정성 다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하의도에서 추도식을 개최했다. 고인의 고향인 하의면에서 서거 이후 매년 추도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추도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박우량 군수,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화 및 추도 행사 등 간소하게 진행됐다.

박우량 군수는 추도사를 통해 “하의3도농지탈환 운동정신을 계승한 김대중 대통령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평생 헌신했으며, 동서화합과 남북통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온 결과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셨다.”며

“전쟁과 코로나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대통령의 지혜와 결단이 더욱 생각나는 시기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셨던 ‘행동하는 양심’을 되돌아보고, 이 위대한 정신을 신안군민과 미래 세대들이 온전히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신안군은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했던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하의도에 대한민국의 정치역사 아카이브홀과 이웃한 신의도에 동아시아 인권평화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근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하의도에서 추도식을 개최했다. 고인의 고향인 하의면에서 서거 이후 매년 추도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추도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박우량 군수,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신안군 제공

영암군, 청년월세 한시 지원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용 여건 악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임대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다만, 1개월이라도 지자체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배우자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되며, 신청 방법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우승희 군수)은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유빈 기자

무안군, 청계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청계나눔마켓 조직화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청계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유플랫폼 청계나눔마켓)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계면 도립1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총 사업비 2억 원(국비 1억 원 포함)의 소규모 점 단위 사업으로 주민 참여와 공동체 중심의 역량강화를 통해 향후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대 연계하는 준비사업이다.

군은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물품교환 등을 통한 지역 주민, 목포대학교 학생, 근로자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청계나눔마켓을 조성했다.

또한 역량강화 컨설팅을 통해 주민 중심의 운영·관리 주체인 청계나눔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현재 설립 인가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선진지 견학을 포함해 11회에 걸쳐 진행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이해, 사회적경제 개념·유형 등 이론교육과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병행 추진해 수료생 25명을 배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목포대학교와 연계해 주민과 학생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상권 활성화 디자인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료식에 참석한 김산 무안군수는 “무더운 날씨에도 청계면 도시재생을 위해 열성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민재 기자

강진군 신마항, 강진항으로 새롭게 출발

강진군은 지난 7월 강진군 마량면 소재 신마항의 명칭이 항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진항’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신마항의 ‘신마’라는 지명은 항이 소재한 마량면의 마을 이름으로, 신마항은 국도, 지방도, 군도가 방사형 형태로 발달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있다. 1998년 2월 연안항으로 지정된 이후 2010년 12월 신마

항 건설공사가 착공돼 접안시설, 방파제, 조병탑, 배후부지(1만6천㎡) 등을 갖춘 항으로 지난 2016년 3월 준공됐다.

지역 주민들은 국가어항인 마량항과 함께 신마항을 서남해안권 종합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유지명인 ‘강진’을 사용한 항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군은 주민 설문조사, 대외적 지명도, 상징성 등을 고려해 전남도에 ‘강진항’으로 항명 변경을 건의해 명칭을 바꿨다.

지난해 7월 군민 대상으로 신마항 항명 변경 관련 설문조사를 읍면별로 실시한 결과, 응답자 437명 중 270명(61%)이 강진항으로 항명 변경하는 것에 동의했고, 이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통해 강진항으로 항명 변경을 추진했다.

/박종욱 기자

목포시, 평화광장 갈치 낚시 행사 시작

목포시가 평화광장 앞바다 갈치 낚시 행사를 오는 12월 10일까지 운영한다.

평화광장 앞바다는 항만구역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조업금지구역이다.

하지만 시는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관광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 참여 의사를 밝힌 어선 39척의 한시적 낚시 허가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 이번 행사를 운영한다.

이에 앞서 시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들을 대상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10~11일 ▲구명조끼 및 소화기 등 안전설비 ▲화장실 비치 여부 ▲항해용 레이더 등 야간운항 장비 ▲신고화인등 및 승객 준수사항 게시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목포 갈치낚시는 호수처럼 잔잔한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짜릿한 손맛과 함께 목포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는 묘미가 있어 관광객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어 왔다.

/박성태 기자

함평,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 농업인의 전문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플라워푸드교육장에서 실시됐다. 과정은 커피의 역사, 우유 스티밍, 로스팅의 이해, 핸드드립, 카페 음료 만들기 등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번 과정에는 총 18명의 여성 농업인들이 참여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농산물과 카페 음료를 접목시킨 새로운 가공상품이 개발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가고싶은 영로우시티 장성호 수변길

영로우시티

장성군

영로우시티

영로우시티(원쪽)

영로우시티(왼쪽)

수변 데크길(원쪽)

수변 데크길(왼쪽)